사바에 머문 흔적, 사진 한 장

탄허기념박물관 2018 특별기획전
근현대를 대표하는 큰스님 사진전
'성성하고 적적하라' 展 9.14~10.2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탄허대종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탄허기념박물관(관장 혜거)은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8년 특별기획전으로 근현대를 대표하는 큰스님 사진전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하라'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정신을 지키며 올곧은 수행을 이어온 큰스님 열여덟 분의 사진과 말씀을 모은 자리다. 이번 '성성하고 적적하라' 展은 2017년 〈팔풍취부동〉전에 이은 두 번째 큰스님 사진자료전으로, 1945년 이전 큰스님들과 사찰전경 사진, 1945년 이후의 사찰전경과 큰스님들의 사진을 고증자료로서 수집해 놓고자 시작된 기획전시이다.

"젊었을 때, 처음 사진 찍는 일이 유행일 때가 있었다. 그 때 대부분 스님들은 '중이 사진은 뭐하러 찍느냐'고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사찰 행사 때 단체로 찍는 사진마저도 찍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서 먼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어른들의 모습을 뵐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 자기 본인 또는 문중에 보관하다 유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길이 모셔야 할 큰 어른들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 혜거 스님 서문 중-

법만을 의지해 살기로 한 출가자에게 법 밖의 것들은 '불이'와 '일여'의 문제일 뿐으로, 사바에서의 시간은 굳이 표시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아닌 듯하다. 노장 생전의 사진 한 장 찾아내는 일이 '일'인 것을 보면, 열반에 든 노장의 흔적을 찾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나간 것일지라도 뒷사람을 위한 표식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노장들의 모습이 법에 의지해 살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 역시 지난 전시와 마찬가지로 큰스님들께서 안거했던 국내 30여 곳의 사찰과 성보박물관, 각 문도회를 통해 어렵게 모은 열여덟 분의 큰스님 사진 100여 점 중에서 54점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도록에 수록했다. 18인의 큰스님은 만공 · 구하 · 한암 · 이종욱 · 춘성 · 운허 · 금오 · 벽안 · 향봉 · 청담 · 서운 · 보문 · 인홍 · 향곡 · 월하 · 경산 · 숭산 · 일타 스님이다.


서운 스님(우측 6번째) 동화사 주지 당시 도견 스님(좌측 6번째) 등과 함께.


향곡선사 젊은 시절.

성성적적(惺惺寂寂)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오는 문장으로, 고요하면서도(寂) 의식이 맑게 깨어 있는 상태(惺)이며, 이것은 모든 수행에서 근본으로 삼는 중요한 태도이다. 이 말은 비단 수행자들에게만 필요한 문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 불화, 갈등과 같은 소란스러운 번뇌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전시대를 살다간 큰스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마음의 중심' 잡는 방법, 즉 '성성적적'을 이번 전시의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다.

혜거 스님이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사진전을 진행하는 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사바세계에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큰스님들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전시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스님들의 말씀과 수행은 문도들에 의해 대부분 말과 글로 기록되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전되기도 하고 심지어 전혀 다른 인물이 큰스님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탄허기념박물관은 현재의 불교계 인물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종계의 중요한 스님들의 삶에 대한 기록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별전을 개최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1, 2차 전시회 때 누락되었던 사진을 보완 수집하여 기록물을 만들고 큰스님들의 사진과 사찰전경의 사진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중차대하고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여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토 세상이 일상의 세계"

'The pure land of vairocana-비로자나 정토'
양선희 개인전 10월 3~9일, 갤러리 이즈

법신의 세계인 비로자나부처님의 정토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의 도제 전승자인 전수조교 양선희 불화가가 그 모습을 그려냈다. 양선희 불화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 제3전시장에서 '제13회 양선희 개인전 'The pure land of vairocana-비로자나 정토'를 개최한다.

문수동자와 사자는 화신불이 되어 세상으로 뻗어나가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모습은 커다란 달에 비유했으며, 그 달 속에 평화로운 일상을 표현했다. 사자, 봉황, 물고기, 개구리, 꽃게, 잠자리 등은 수미단과 벽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불교소재들이다. 사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물고기는 수행자를, 개구리는 불도를 이루려는 기다림을, 잠자리는 자유, 꽃게는 번뇌를 끊는 단호함을 상징한다.


선재와 새침떼기 친구들 122×162㎝.

꽃과 새로 장엄된 세계는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 차있다. 이처럼 친근감 있는 불교적 소재와 사계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주제별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달 속에 세상을 표현한 '달에 핀 꽃' 20점, 수미산 위에 '높이 뜬 달' 17점, 생명수와 같은 'Vairocana Tree' 3점, 삼보사찰의 한국의 세계를 담은 'The pure land of vaircana' 3점 등 삼베 바탕에 전통 석채 천연안료로 그린 4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영재 미술사상가는 평론에서 "양선희의 참신한 시각과 진지한 해석이 해맑고 명증한 화면으로 거듭난다. 확산되는 시각은 평안한 자유를 체감하게 하고 재해석되는 공간과 위상은 화면의 중량감을 최소화한다. 인물과 도상에 집중되던 시선은 시간과 공간 그 너머의 세계를 향한다. 주제 집약적인 종래의 화면구성은 다원구성의 확산 시각으로 바뀐다.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어 보는 사람에게 동비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던 화면구성이 좀 더 큰 화면의 안에서 낮지만 울림이 좋은 목소리로 전체 속의 하나와 또 하나들을 조화시킨다"고 평했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불화를 감상하고 불화 속 정토의 세계가 일상의 세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일이다"고 말했다.

양선희 불화가는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으며,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 전공)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1991년과 1992년에 전승공예대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제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법화의 세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등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한 자리에 모인 세종대왕 관련 국보 · 보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1층 중 · 근세관 조선실 9.19~12.2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즉위 600주년(즉위일 음력 1418. 8. 11.)을 맞이하여 세종시대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을 상설전시실 1층 중 · 근세관 조선실에서 특별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18년 8월 국보 승격이 예고된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 보물 제1404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 보물 제1405호'를 비롯하여, 최근 구입한 〈월인석보(月印釋譜)〉 권20(보물 제745-11호),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 보물 제1848호〉로 한 곳에서 만나기 어려운 귀중한 문화재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18년 7월 구입한 〈월인석보〉 권20(1459년, 세조 5)과 〈목우자수심결언해(1467년, 세조 13)〉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의 초기 모습과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월인석보〉는 최초의 불경 언해서로, 세조(재위 1455~1468)가 수양대군시절 어머니 소헌왕후(1395~1446)의 명복을 빌며 지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釋譜詳節(1447년)〉과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감탄하며 석가모니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며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 1449년)〉을 함께 편집하여 간행한 책이다. 〈월인석보〉의 글씨체는 〈훈민정음〉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자로서 훈민정음이 생명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월인석보 권20.

〈목우자수심결언해〉는 고려시대 승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쓴 〈목우자수심결〉을 세조가 직접 구결하고, 신미(1403~1480)가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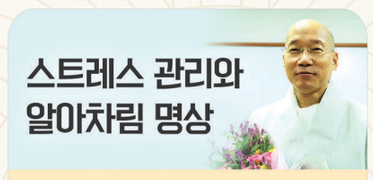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천만불자들의 PICK!

BTN 불교TV 대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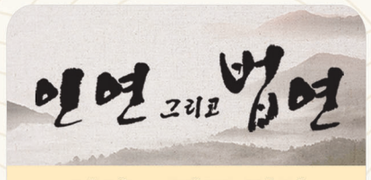
드라마 붓다
월·화 13:30



스트레스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화 15:00, 23:00



산은 산 물은 물
목·금 14:00



인연 그리고 법연
수 09:30, 14:30 / 금 08:30



일감스님의 만행
화 14:30, 20:30



원순스님의 능엄경강설
금 13:00, 22:00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금 09:00,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화 11:30, 19:30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수 08:30, 21: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수 11:30,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